



고려해운

중동(두바이)서비스 개시

고려해운(대표 최영후)이 8월27일부터 Gold Star Line의 선복을 빌려 주 1항차 중동 서비스를 시작한다.

Gold Star Line의 Super Galex Service항로 운항 구간 중 이번에 고려해운이 선복을 빌려 서비스 하는 기항지는 Singapore-PortKelang-Colombo-Dubai-Nava Sheva-PortKelang-Singapore이다.

중동측의선박대리점은 Modern Shipping LLC로 고려해운과 파트너 계약을 맺는 Rais Hassan Saadi그룹의 계열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두바이 신규 서비스에 대해 고려해운은 “최근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해운시황의 변화에 발맞추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해운은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이번 서비스는 고려해운이 추가로 선박을 투입하지 않고 Gold Star Line의 선복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선복 과잉에 따른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해운

한전 석탄수송 계약 체결

대신해운(대표 함용관)이 한국전력이 실시한 중국산 연료탄 장기수송 입찰에서 낙찰되어 앞으로 한국전력용 석탄 100만톤을 5개월여에 걸쳐 수송하게 된다.

대신해운은 지난 8월 11일 실시된 한국전력(남

동발전)용 연료탄 장기운송 계약 경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장기운송계약(COA)에 대해 이미 협의를 마쳤다.

이번 연료탄 장기운송 경쟁입찰에는 5개 국적 선사와 1개 중국선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대신해운으로 낙점됐다. 대신해운측은 최근 남동발전과 정식으로 COA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이 수입하는 중국산 석탄은 황하와 텐진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총 물량은 100만톤이며, 오는 9월15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6개월여에 걸쳐 수송하게 된다. 양하항은 남동발전이 있는 영흥도이다.

연료탄 수송을 위해 투입되는 선박은 파나마스급 벌크선이며 대신해운측은 1척을 장기용선하여 이 서비스에 전담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선박 스케줄은 잡히지 않았지만 용선선박은 총 15-20회 정도 운항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우상선

벌크영업 강화

선우상선(대표 정인현)은 8월1일자로 박태범씨를 영업상무로 영입, 벌크영업조직을 강화했다.

박태범 상무는 해양대 항해학과 31기를 졸업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IMC해운에서 벌크영업을 전담해 온 전문해운인이다.

선우상선은 이번 박태범 상무의 영입으로 Risk가 증대되고 있는 부정기해운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북식량차관 쌀 수송에서 선우상선 컨소시엄이 30만톤의 수송계약을 체결했다.

SK해운

상반기 영업이익 607억원

SK해운(대표 이정화)은 올 상반기에 7,67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607억원으로 전년동기 영업이익 811억원보다 25.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이익은 321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줄어들었다.

한편, SK해운은 7월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에 걸쳐 서울 중구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40여명(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릉청소년해양수련원(강릉시 주문진읍 소재)에서 여름해양캠프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두번째 행사로 워터슬레이, 젯트스키 등 수상놀이 프로그램을 위주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가졌다.

복지관 어린이들은 오랜만에 도시를 떠나 산과 바다를 놀이터로 삼아 4륜 오토바이, 젯트스키, 카누, 고무보트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육해상 놀이를 체험했으며, 이번 행사에서 준비된 다양한 해양활동은 어린이들의 심신을 단련시켜 자립심을 키울 뿐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성해운

철강운반선 5척 발주

신성해운이 최근 철강운반선 5척을 목포조선과 건조계약했다.

내년부터 2007년까지 인도되는 이번 발주선박은 6,700DWT급으로 척수는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해운측은 “이번 신조 발주는 최근 고장중 화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신조 발주하는 것으로 기존 신성해운이 서비스하고 있는 한·중·일 그리고 동남아시아 부정기 항로에서 투입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성해운이 이번 발주로 총 보유선박은 28척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성해운은 1988년 설립 이래 한국 최고의 부정기선사를 목표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으며 그동안 선박관리, 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내항화물운송, 외항화물운송 서비스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왔다.

세븐마운틴그룹

경영진 워크숍 개최

세븐마운틴 그룹(회장 임병석)은 전 계열사 임원의 화합과 그룹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자 지난 7월15일부터 16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 소재 피닉스파크에서 '2005년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계열사 경영진의 단합과 그룹 계열사별 사업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그룹차원의 Biz Synergy를 창출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70여 명의 그룹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 날 씨브나운틴 그룹 임갑표 부회장은 개최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씨브나운틴이라는 한 배를 탄 가족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열성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그룹의 성장방안과 미래비전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계열사 소개, 임원별 담당 업무 소개와 경영실적 및 계획 발표가 있었으며, 저녁 유희시간에는 사업별로 조를 편성하여 한마음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16일에는 건강관리에 대한 외부강사 강의 및 사업부문별 경영전략 수립과 발표가 이어졌다.

씨브나운틴 그룹 임병석 회장은 강평을 통해 “경영진은 사업방향 설정의 올바름과 스피드(추진력)가 요구된다”며,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진 역할 정립을 당부했다. 또, 그룹 발전에 각 임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씨브나운틴그룹은 7월20일 그룹내 계열사들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상무 : 씨브나운틴해운 임종정(林鍾丁), 세양선박 명제곤(明在坤), 진도 김중철(金鍾喆) △이사 : 우방건설 이혁(李赫), 서울선박운용 김태경(金泰敬) △이사대우 : 진도 이재우(李在祐), 우방건설 김상수(金尙洙), 김상수(金相洙), 김문선(金文善), 한리버랜드 김주영(金周英), 오재언(吳在彦)

장금상선

광양-일본 첫 직항로 개설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은 8월3일 전남 광양과 일본 오사카를 잇는 정기항로를 개설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7월20일 전남도청에서 해운사인 장금상선,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항로개설 협약



식을 체결했다.

지난 98년 광양항 개항 이후 직항로 개설은 7년여만이다. 인천-광양-일본이나 부산-광양-일본을 잇는 연결노선은 운항되고 있으나 직항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는 “대일 농산물 수출과 광양항 활성화 등을 위해 광양과 오사카간 직항로를 개설했으며 8월3일 정식 운항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항로는 광양항과 일본 하카다, 고베, 오사카를 거쳐 광양항까지 오가는 노선으로 주 2회 운항한다.

투입선박은 컨테이너 120TEU를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선 ‘SS울산호’로 광양2-2단계 컨테이너 부두에서 출항한다.

그동안 전남에는 일본 직항로가 없어 부산이나 마산항을 통해 농산물 등이 수출됐으나 이번 직항로 개설로 지난해 5월 개장한 광양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활성화와 광양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직항로가 개설되면 연간 농산물 1,400TEU, 공산품 1만TEU가 수출될 것으로 보여 21억여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날 경우, 선사측에 3년간 최대 27억3,000만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전남도 이인근 해양항만정책과장은 “직항로 개설로 이 지역 농수산물의 수출이 탄력을 받게 돼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경해운

목포-일본 정기항로 순항

천경해운(대표 김지수)이 목포권 대불산업 단지 화주들로부터 수송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축적되면서 목포-일본 다카마쓰항로의 영업도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천경해운은 지난 2월22일 목포항 개항 108년 만에 처음으로 목포 신항과 일본의 다카마쓰항을 잇는 정기항로에 컨테이너선을 투입, 월1항차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로써 목포항은 108년만에 외항 컨테이너정기항로 시대를 맞게 됐으며, 컨테이너항로를 개설한 이후 선적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항 초기에는 대불산업 단지에서 제지를 생산하고 있는 ‘보워트 한라제지’의 다카마쓰항 화물이 항차당 42-44TEU에 그쳤다.

그러나, 천경해운의 수송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면서 목포에서 일본지역으로 나가는 컨테이너화물도 늘고 있다.

‘보워트 한라제지’의 다카마쓰항 화물과 도쿄항 화물(항차당 10여TEU), ‘대한 세리믹’의 나고야항 화물(항차당 15TEU)에 추가하여 부산항에서 환적형태로 나가는 ‘대한 세라믹’의 중국 천진항 화물(항차당 10TEU) 등 항차당 컨테이너 화물이 80여TEU에 달하고 있다.

이와함께 광주권의 화주들도 지금까지는 광양항 및 부산항을 이용하여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을 선적 하였으나, 목포항이 지리적으로 광주권에서 가까워 물류비를 절감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환적형태로 일본, 중국의 양

하지로 화물을 운송할 수가 있어 목포항에서 선적시기가 맞는 화물의 선적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목포신항만(주) 정봉두 영업본부장은 “천경해운의 목포항 기항은 최근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Blue Ocean’ 개념의 새로운 시장개척의 사례로서 해운업계에 좋은 선례가 될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목포 지역 사회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상선

태영가족 야유회 개최

태영상선(대표 박영안)은 해상 및 육상직원 그리고 관계회사인 태영산구국제물류, 태영선무, 다이에이쉬핑의 임직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지난 7월 16일-17일 양일간 통영해양소년단 수련원에서 태영가족 야유회행사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소중한 만남, 우리는 하나 라는 행사 슬로건과 함께 태영상선의 50주년을 기념하고 또한 직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다.

태영상선측은 이번 야유회는 200여명이 참석하여 해상스포츠, 캠프파이어, 통영관광 등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전 태영가족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크로드

LINER SERVICE 개설

파크로드(대표이사 염은선)가 8월말부터 LINER SERVICE를 개설한다.

파크로드는 8월23일부터 기존 벌크선 위주의 부정기선 서비스와 더불어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우선 자사선 2척을 한국/중국/동남아/벵갈만/페르시아인 걸프 노선에 투입하여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자사선 2척을 추가, 선대를 확충하여 world-wide 영업으로 점차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정기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파크로드는 정기선 팀을 별도로 신설함과 더불어, 선적관련업무와 문서관리를 이원화했으며 8월중으로 인원을 충원하여 신규 하주개발 및 노선정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다목적 복합선을 투입해 각종 차량을 빠르고 용이하게 하역하고, 30미터가 넘는 길이의 장척 화물 선적도 가능함은 물론 HEAVY DERRICK을 장착하여 100여톤에 이르는 중량화물의 취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파크로드 관계자는 “정시인도와 고객 편의에 충실하고자 복합적인 기능과 구조로 다양한 화물을 선적하는 데 적합한 MULTI-PURPOSE 선박을 직접 보유해 투입하고, 현장에서 다년간 경험을 축적한 화물 감독이 직접 하역을 감독하여 화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업무시스템을 완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갖가지 화물의 선적, 운송과 양하에 대한 경험을 두루 갖춘 유능한 직원들로 팀을 구축함으로써 8월부터 시작되는 정기선 서비스를 위한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크로드측은 이번 LINER SERVICE의 실시로 기존 고객에 대한 지원업무는 물론이고 신규 고객확보차원의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진해운 올 상반기 영업실적 공시

한진해운(대표 박정원/www.hanjin.com)이 최근 매출액 2조8,925억원 영업이익 2,820억원 등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공시했다.

매출액은, 컨테이너 수송량 증가와 평균운임단가 상승에 힘입어 8% 이상 증가(US달러 기준)하는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대부분 달러 수입에 의존하는 매출 구조에 기인, 달러 환율 하락으로 원화 환산 매출액은 5.72% 감소하였다.

영업이익은 연료유와 용선료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압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9% 감소하였으나, 과거 5년간 상반기 평균 영업이익율의 두 배 이상인 약 10%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율을 유지하였다.

연료유 단가는 US\$165.89/톤 에서 US\$212.66/톤 으로 28.19%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이 용선료 상승과 더불어 영업이익 감소의 주요한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외화환산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9억원에서 160억원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0.33% 감소하였다.

컨테이너 수송량은 전년 동기의 132만 7,000TEU에서 135만9,000TEU로 2.41% 증가하였고, 특히 주력 노선인 미주 항로 수송량이 43만2,000TEU에서 47만TEU로 8.87% 증가하는 등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부채비율은, 총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227%에서 202%로 약 25%P 감소하였으며, 순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져 재무 건전성이 더욱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진해운은 최근 8,000TEU급 신조컨테

이너선을 중국-미주노선에 투입했다.

지난 6월말 명명식을 가진 8,0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중 두 번째 선박인 한진 마이애미(Hanjin Miami)호는 지난 8월7일 중국 엔터엔항을 시작으로 중국과 미주간을 운항하는 PSX(Pacific Express Service) 노선에 본격 투입되었다고 한진해운측은 밝혔다.

한진 마이애미호는 홍콩과 대만 카오슝을 거쳐 8월11일에 광양항을 통해 국내에 첫 입항했으며, 14일 오전 부산 감만 터미널을 출항하여 미국 롱비치항을 향한 미주 노선의 첫 항해를 시작했다.

한진해운은 올 연말까지 추가로 PSX노선에 한진 볼티모어호, 한진 안티안호, 한진 달라스호 등 8,0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3척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진 볼티모어호는 10월 초, 한진 안티안호는 12월 초, 한진 달라스호는 12월 중순 경 미주 노선에 본격 투입될 전망이다. 순차적인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의 투입으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력 노력 중 하나인 미주 노선의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상선

상반기 순이익 2,330억원

현대상선은(hmm21.com) 200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35.9% 늘어난 2,330억원을 기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같은 현대상선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최근 해운경기 위축 분위기 등 영업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거둔 실적이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상반기 매출은 2조3,85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조4,481억원에 비해

2.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434억원으로 전년 동기 2605억원에 비해 6.6% 줄었다. 그러나 경상이익은 2,680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2,468억원 대비 8.6%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 상반기 1,714억원에 비해 무려 35.9%나 증가한 2,330억원을 달성했다.

현대상선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환율 하락에 따른 것으로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상반기 매출은 23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 20억7,900만 달러에 비해 13%나 증가하는 실질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며, 당기순이익 규모가 확대된 것은 이자비용, 법인세의 감소와, 외화환산손실 축소 등 영업외비용이 전년도 상반기 1,644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862억원으로 48%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이자비용이 855억원에서 492억원으로 42%나 크게 줄어들어 재무구조 안정성이 현격히 개선된 것이 그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상선은 이같은 상반기 실적은 환율 하락에 따라 원화표시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 등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경영환경 속에서 달성했다는 점에서 기대이상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지난 상반기 벌크선 운임지수(BDI) 및 유조선 운임지수(W.S, 중동 - 극동항 초대형 유조선 기준)가 하락하는 등 세계 해운경기가 지난 1분기 이후 하강국면에 진입하였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35.9%나 상승하는 실적을 보인 것이다.

현대상선 측은 이번 실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고수익을 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몇 년간 경영실적 호전, 신용도 향상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어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이 크게 줄어든데다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불투명



한 상황에서도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시적 리스크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하였으며 △상반기 중 인도, 베트남 등 해외 지점 신설 및 영업망 확대에 따른 각 사업부문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돼 수익성이 높아졌고 △사업구조에 있어서 컨테이너선와 비컨테이너선 부문의 비중이 60:40으로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상선 노정익(盧政翼) 사장은 최근 이와 같은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세계 해운경기의 사이클에 따른 경영환경 위축에 대비하여 회사의 대응방향과 의지를 담은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보냈다.

노 사장은 서한에서 "어떤 업종이라도 계속적으로 호황세가 지속될 수 없으며, 지금의 세계 해운경기 사이클은 지난 2년간의 초호황기를 지나 서서히 조정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대체로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대상선은 호황 뒤에 다가올 불황기에 대비해 그동안 비용절감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한 상시적 리스크 관리체제 가동 등 체질강화에 주력해 온 만큼, 어떠한 경영환경에서도 만족스러운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주들에게 약속했다.

홍아해운

영업이익 105% 증가

홍아해운(회장 이운재)의 상반기 매출액은 2,580억원으로 전년동기 2,566억원보다 0.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19억원으로 전년동기의 58억원보다 105.2% 늘어났다.

경상이익은 206억원으로 전년동기 85억원보다 142.4% 늘어났으며 순이익은 143억원으로 전

년동기(85억원)대비 68.2% 증가했다.

한편 2분기만의 매출액은 1,336억원으로 전기 1,244억원보다 7.4% 늘어났으며 전년동기 실적 1,331억원보다 0.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3억원으로 전기 56억원보다 12.5% 증가했으며 전년동기실적 48억원보다 31.3% 증가했다.

한편, 홍아해운은 여직원 모임인 '해연회'를 중심으로 최문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함께 지난 7월16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성심원으로 사회봉사활동을 벌였다. 성심원은 유아3세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45명의 남자 고아원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고아원이다.

홍아해운의 이번 봉사활동은 기업이념인 윤리 경영 실현의 일환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회사를 실현하고자 행해진 것으로 성심원측에 학용품 등을 포함한 간소한 선물을 증정하고, 성심원 주위 환경정리를 함으로써 이웃사랑을 몸소 체험 하는 시간이 되었다.

부산항만공사

환적화물 유치 대책회의

부산항만공사(사장 추준석)는 7월28일 부산항만공사 3층 대회의실에서 고려해운, 홍아해운 등 10개 연근해선사 영업담당 실무자들을 초청해 기획영업본부장 주재로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금년 상반기 부산항 전체 물동량은 585만TEU로 전년동기대비 약 4% 증가했다. 수출입물동량이 325만TEU로 전년동기대비 0.03%증가로 전년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환적물동량은 256만TEU로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환적화물은 지난해 24.3% 증가율에서 금년 상반기 1.2%로 감소한 반면, 중국 환적화물

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초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3분기 이후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수출입화물의 증가율 둔화는 국내 경기침체, 수도권 화물의 인천, 평택 분산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적화물의 증가율 둔화는 중국 항만의 지속적 개발에 따른 중국 직기항 선대 증가, 중국↔일본 직항증가, 일본↔부산↔중국간 펜듈럼 서비스 증가, 중국선사의 저렴한 운임정책, 선복량 부족 및 환적화물의 채산성 악화로 인한 연근해 선사들의 로컬화물 선호 등으로 분석된다고 부산항만공사는 밝혔다.

사이버로지텍

해운물류사업 참여

해운물류 IT전문기업 사이버로지텍(대표 김종태)은 최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2007년 5월까지 추진하는 'RFID(전자태그)를 활용한 해운물류 e-윙 및 센서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물류 주체간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표준을 독점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및 특허 출원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현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시장의 기술 토대를 벗어나는 시발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이버로지텍은 국내 항만물류 환경에 적합하고 국제표준규격(ISO/IEC 18000-7, ISO 18185-1 등)을 준수하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이버로지텍은 해운물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 이 컨소시엄은 기술구성 분야별 인력을 적절히 투입해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조직됐다.

이 컨소시엄은 국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장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RFID 항만 물류 기반 설비와 호환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위해 국제표준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사이버로지텍은 RFID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컨테이너 이동에 관한 분류 자동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정확한 반출입 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터미널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송사별 작업현황 및 실적 관리, 본선작업 진행상황의 실시간 관제를 가능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환경안전학회

학회장에 임병석 회장 선임

씨브마운틴그룹 임병석 회장이 해양환경안전학회 신입회장으로 선임됐다.

해양환경안전학회는 지난 7월28일 한리버랜드 독도나루 엘페홀에서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임병석 회장을 새로운 학회 회장으로 선임했다.

해양환경안전학회 관계자는 "임회장은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해양연맹, 해양문화가협회, 한국물류학회, 해양문화재단 등 해양관련 학계 및 단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른 관계로 본 학회를 이끌어 나갈 책임자로 내정, 수락을 요청한 것"이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신임 임병석 회장은 이날 취임인사를 통해 "여러 훌륭한 회원들을 모시고 학회를 이끌어 나가 기엔 아직 부족하지만 학회의 발전이 곧 국가 해양경쟁력 강화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